

2025. 9. 10.(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9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건축기획과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02-2133-5570
건축문화시설팀장	최화식	02-2133-7718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02-2133-7090
건축정책팀장	김 석	02-2133-7103
누리집	architecture.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3쪽

문화로 즐기는 건축, 9일(화) 서울건축문화제... 'K-건축 세계화' 시동건다

- 9.21.(일)까지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올해 건축상 수상한 '푸투라서울'서 개막식
- '개막식'서 올해 건축상 수상 8개 작품에 시상, K-건축 글로벌 확산 위한 업무협약도
- 건축상 전시·건축문화투어 등 참여 프로그램... 26일(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
- 시 "서울 넘어 세계와 K-건축문화 나누는 축제 되길... 건축가의 도전 힘껏 도울 것"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서울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K-건축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9.9.(화)~9.21.(일) '서울성(Seoul-ness) : 다층도시 (Multi-Layered City)'를 주제로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9일 열릴 문화제 개막식은 올해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에 오른 '푸투라서울(종로구 가회동)'에서 열렸다.

□ 시는 이번 축제에서 7개 건축단체와 ‘K-건축 글로벌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상 수상자 등 신진 건축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축문화를 함께 즐기고 K-건축을 세계로 확산하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13일간 진행되는 ‘건축문화제’는 건축상 시상식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시민을 맞는다. 시는 이번 행사는 건축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K-건축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서 올해 건축상 수상한 8개 작품 시상, K-건축 글로벌 확산 위한 업무협약도>

□ 9일(화)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국형걸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그리고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건축상 시상식, K-건축 세계화를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 ‘제43회 서울시 건축상’은 (주)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 ‘코어해체시스템 (성동구 성수동)’을 포함한 8개 작품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8개 수상작 중 신진 건축가 설계 작품이 5작품에 달해 K-건축의 잠재력과 차세대 건축가들의 높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로 평가됐다.

○ ▲ 최우수상은 ‘푸투라서울 ·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 우수상은 ‘중동고등학교 원익관 · 서울 AI 허브 메가플로어 · 화연재 · 커피

_공연장/도시_공연장(COFFEE AUDITORIUM)’이 받았으며, 올해 신설된 ‘신진건축상’은 ‘그리드 149’가 받았다.

- 아울러 지난달 ‘시민 온라인 투표(엠보팅)’를 통해 가장 많은 시민 호응을 얻은 상위 2개 작품, ▲코어해체시스템과 ▲커피_공연장/도시_공연장에는 ‘시민공감특별상’ 시상이 이뤄졌다.

- 오 시장은 시상식을 앞둔 8일(월) 오후, 대상 ‘코어해체시스템’을 비롯한 건축상 수상작 3곳을 직접 방문해 건축가로부터 설계 의도와 작품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 우수상 ‘중동고등학교 원익관’, ‘커피_공연장’을 찾은 오 시장은 “좋은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건축가·건축물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서울시와 주요 7개 건축 관련 단체 간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지난 5월부터 공감대를 형성, 협의해 온 결실로 K-건축 세계화와 국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 등 행정 지원하고 ‘7개 단체’는 혁신건축가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서울건축재단 설립 관련 건축문화의 진흥사업 발굴, 신진 건축가 육성 등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협약기관(7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여성건축사회, 서울건축포럼

<올해 ‘건축상 수상작 기획전’ 등 6개 건축 관련 전시, 건축문화투어 등 참여 프로그램>

- 행사 기간 동안 총 6개 건축 전시가 열린다.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올해 건축상 8개 수상작 기획전으로 ‘건축가의 책장’을 콘셉트로 한 모형, 책, 영상 등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를 이색적으로 전달한다.
- ‘국형길 총감독 주제전’에서는 여러 건축 조각을 통해 시민이 각자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난해 대상작인 ‘CLOUD(신흥시장)’ 특별전에 사용된 재료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도 제시한다.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 한옥지원센터에는 지난 8월, 건축 전공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제14회 대학생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전시’ 축소 모형이 전시되며, 서울도시건축센터에는 ‘건축산책’ 공모전 수상작도 선보인다.

- 건축 전문 지식이 없어도 건축을 더 가깝게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건축문화포털(archiculture.seoul.go.kr) 또는 인스타그램(@saf.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축문화투어(9.11, 9.18)’는 올해 8개 건축상 수상작을 건축가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들어가기 어려운 건물

내부도 특별 개방한다. ‘오픈오피스(9.12, 9.16)’는 건축가의 실제 작업공간을 방문해 설계 과정과 건축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 ‘오픈클래스(9.13)는 건축상 수상자가 시민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건축문화 토크콘서트(9.20)’는 국형걸 총감독과 함께 ‘요즘 건축 이야기’를 주제로 현대 건축 트렌드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오는 26일(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 10월 서울국제건축포럼 등 건축행사 연이어>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서울건축문화제’에 이어 11월까지 ‘K-건축 세계화’ 순풍을 이어 나간다. 오는 9.26.(금)~11.18.(화)에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과 함께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 (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린다.
- 10월에는 UIA국제건축가협회(이사회)의 서울 방문과 연계한 ‘서울 국제건축포럼’이 개최돼 서울을 넘어 세계와 건축문화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은 “올해 ‘건축기행’을 통해 건축물 하나가 동네를 바꾸고, 시민 일상에 변화를 주는 현장을 마주하면서 ‘서울의 미래는 건축가의 손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했다”며 “서울건축문화제가 서울을 넘어 세계와 K-건축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건축가의 도전이 빛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시 프로그램

연번	전시장소	전 시 명	주요내용
1	북촌문화센터 (종로구 계동 105)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기획전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대상1, 최우수2, 우수4, 신진건축상1)
2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작 특별전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작 특별전시 CLOUD (설계자 : 위진복, 홍석규)
3		총감독 주제전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에 대한 국형걸 총감독(이화여대 교수) 전시 *서울성(Seoul-ness) : 다층도시(Multi-Layered City)
4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홍보전시	주거약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전시
5	한옥지원센터 (종로구 계동 135-1)	2025 제14회 UAUS (대학생건축과연합회) 건축 파빌리온 모형전시	25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생건축과연합 파빌리온 모형 전시 (전시주제 : ASK NATURE : Biomimicry(생체모방))
6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라키비움 (종로구 신문로2가 170)	‘2025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수상작 전시 (주최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1	건축문화투어	1회차 : 9.11.(목) 2회차 : 9.18.(목)	수상작품 (현장)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투어 (2일간 나누어 진행)
2	오픈클래스	9. 13.(토) 16:30~18:00	북촌문화센터 (종로구 계동 105) 야외마당	〈 건축가와 시민의 만남 : 오픈클래스 〉 2025 건축상 수상 건축가가 수상작 전시를 직접 설 명 후 질의응답 등
3	오픈오피스	1회차 : 9.12.(금) 2회차 : 9.16.(화)	건축사사무소 (현장)	〈 건축가와 시민의 만남 : 오픈오피스 〉 2025 건축상 수상 건축가 설계사무소 탐방
4	건축문화 토크콘서트 (요즈음 건축 2.0)	9. 20.(토) 16:30~18:00	북촌문화센터 (종로구 계동 105) 야외마당	〈 건축가와 시민의 만남 : 건축문화 토크콘서트 〉 2025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과 함께하는 요즈음 건축 이야기

※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vak.seoul.go.kr>)에서 진행되며 장소와 일정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SEOUL ARCHITECTURE FESTIVAL



2025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서울성: 다층도시

Seoul-Ness:
Multi-Layered
City

2025.
09. 09. Tue -
09. 21. Sun

북촌문화센터
Bukchon Culture Center

전시 프로그램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기획전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총감독 주제전
제14회 대학생건축과연합축제 연계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건축문화토크콘서트
건축문화투어
오픈클래스
오픈오피스

문의처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
saf2025@wayd.kr
02-322-5670



붙임3

건축 관련 단체 현황(7개 단체)

연번	단체명	회장	설립근거 (설립 연도)	회원수	설립목적	서울시 주요 협업 사항
1	대한건축사협회 (KIRA)	 김재록(2024~)	「건축사법」 제31조 (1965년)	17,200	건축사의 품위 보전, 권익 증진, 건축문화 발전	[2025]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참여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2	[서울시 지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KIRASEOUL)	 박성준(2024~)	「건축사법」 제31조 (1965년)	5,500	서울지역 건축사 권익 보호, 도시환경 개선	[2025]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 업무 협약 체결 [2024~] '서울, 건축산책' 등 행사 개최 [2024] 해체공사 감리 관리 업무 협약 체결
3	(사)한국건축가협회 (KIA)	 한영근(2024~)	비영리법인 (1957년)	6,300	건축가의 권익 보호, 건축문화 창달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 추진 협력 [20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 위탁운영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4	(사)한국여성 건축가협회 (KIFA)	 신경선(2024~)	비영리법인 (1982년)	1,500	여성 건축인의 권익 증진 및 문화 확산	[2025] 국제 여성건축가 기획전 개최(DDP) [2025] 서울 공공건축 설계공모 협약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
5	(사)새건축사 협의회 (KAI)	 임형남(2023~)	비영리법인 (2002년)	1,100	젊은 건축사 중심, 전문성·공공 성 중시	[2023] 제도 개선 건의 등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도시워크숍 행사운영 [매년] '건축집담' 강연 개최
6	(사)대한여성 건축사회 (KWAA)	 최운영(2025~)	비영리법인 (1994년)	350	여성 건축사의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2025] 제30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7	(사)서울건축 포럼	 홍성용(2024~)	비영리법인 (2016년)	100	건축문화 진흥	[2023] 서울 디자인 혁신방안 세미나 [2023] 감리제도 개선방안 제안

구 분	내 용
목 적	본 협약은 K-건축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와 7개 건축사협회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력사항 1	혁신건축가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고 국제 교류 및 글로벌 홍보를 위한 내용
협력사항 2	세계건축문화를 선도할 (가칭)서울국제 도시공간 디자인상 제정 및 서울건축재단 설립을 위한 내용
협력사항 3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한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과 미래 선도 건축가 육성을 위한 내용
협력사항 4	건축가의 우대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
협력사항 5	기타 상호간 합의된 K-건축문화의 세계로 확산을 위한 내용



사진1.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월) (주)푸하하건축사사무소 한양규 대표와 '제43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성동구 '코어해체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2. 오세훈 서울시장의 8일(월) (주)푸하하건축사사무소 한양규 대표와 '제43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성동구 '코어해체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3. 오세훈 서울시장의 8일(월) (주)프로토건축사사무소 윤선경 대표와 '제43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에 선정된 강남구 '중동고등학교 원익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4. 오세훈 서울시장의 9일(화)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6. 오세훈 서울시장의 9일(화)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코어해체시스템' (주)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 한양규 건축가에게 축하를 전하고 있다.